

# 만화콘텐츠 교육을 위한 네칸만화 구조와 수사법 연구 : 경향신문 <장도리>를 중심으로

박경철\*

## 목 차

- I. 서론
  - II. 네칸만화의 기승전결 구조와 수사법
  - III. 네칸만화의 기승전결 구조와 수사법 분석
  - I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 초 록

대학의 만화교육과정에는 이론 및 실기로 가르쳐야할 전공으로 카툰, 만평, 네칸만화, 시사만화, 웹툰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네칸만화의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네칸만화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네칸만화는 소재에 따라 크게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루는 '순수만화'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문제의식을 풍자와 해학으로 드러내는 '시사만화'가 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네칸만화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폭넓은 소재의 순수 네칸만화보다 시사로 한정되는 시사 네칸만화의 구조를 분석해 보는 것이 용이하다 판단하여, 신문에 연재되는 네칸만화 중 경향신문의 <장도리>를 중심으로 기승전결에 따른 구조와 수사법을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는 네칸만화의 구조와 수사법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네칸만화의 장르를 이해하고 나아가 네칸만화를 창작할 수 있는 전공 지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있다. 순수 네칸만화까지 접근하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만화교육과정에서 네칸만화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 네칸만화, 시사만화, 신문만화, 만화콘텐츠, 콘텐츠교육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1. 서론

## 1. 연구배경과 목적

대학의 만화교육과목에는 카툰, 만화, 스토리, 웹툰, 컴퓨터그래픽 등이 있다. 만화 전공이 있는 대학에서는 <카툰> 과목이 있기도 하지만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통합된 대학에서는 <카툰> 과목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카툰과 만화의 사이에 있는 <네칸만화>는 전공교육과목 안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현황이다.

구분	공주대학교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조선대학교
1-1	서사만화1		만화기초1	
1-2	카툰닝1		만화기초2	만화기초1
				만화애니메이션기법1
2-1	서사만화2	그래픽노블워크샵1	단편만화창작1	만화기초2
	카툰닝2	극화기법1		만화애니메이션기법2
	카툰1	실험만화1		
		캐릭터처1		
2-2	카툰2	그래픽노블워크샵2	단편만화창작2	만화제작1
	캐릭터처	극화기법2		만화테크닉1
		만화배경		
		실험만화2		
3-1	만화연출	극화창작1	중편만화창작1	만화제작2
	실험만화	디지털만화실기1		만화테크닉2
	웹툰1	만화연출1		
		풍자만화연구1		
3-2	연재만화1	극화창작2	중편만화창작2	만화연출1
	웹툰2	디지털만화실기2		만화제작3
		만화연출2		만화테크닉3
		풍자만화연구2		
4-1	디지털코믹스	극화창작3	만화워크샵1	만화연출2
	멀티카툰1	독립프로젝트1		만화제작4
	연재만화2	카툰1		만화테크닉4
4-2	만화워크샵	극화창작4	만화워크샵2	
	멀티카툰2	독립프로젝트2		
		카툰2		

표 1. 만화교육과목 개설 현황표

<표 1>은 만화전공이 있는 2개 대학과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통합된 2개 대학의 일부 교과목이다. 카툰코믹스전공인 공주대학교, 만화전공인 상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인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인 조선대학교의 교과목에서 만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목을 선별하였다. 드로잉·미학·비평·스토리·애니메이션·웹·컴퓨터그래픽·콘텐츠 캐릭터처·캐릭터 크로키 해부학 등과 연관된 과목을

제외시키고 만화실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목 위주로 정리하였다. <카툰> 과목이 개설된 대학교는 공주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이며, 4개 대학에서 과목명은 다르지만 '서사만화·연재만화·극화창작·만화창작·만화제작'의 이름으로 개설된 <만화> 과목들이 있다. <네칸만화>의 과목명은 없지만 다른 내용에 포함시켜 교육할 경우의 가능한 과목은 공주대학교의 '서사만화나 카툰', 상명대학교의 '풍자만화연구', 세종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만화기초' 과목이다. 이처럼 네칸만화가 독립된 과목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교육 현장에서 외면 받는 이유는 신문의 시사만화라는 고정관념과 유머 네칸만화의 경우라도 상업적인 면에서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손상익은 신문 시사만화의 침체 원인을 '올드미디어의 권위와 뉴스전달 독점체제의 와해,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한 독점적 정치비판기능의 희석과 정치적 무관심층의 증가'로 설명하고 있다.<sup>1)</sup>

만화를 칸 또는 페이지 기준으로 형식적인 분류를 하면 한 칸을 사용하는 카툰과 만평, 네칸을 사용하는 네칸만화, 페이지를 사용하는 서사만화와 스크롤 형식의 웹툰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고려한 만화의 대표적인 형식을 뽑는다면 카툰과 서사만화일 것이다.<sup>2)</sup> 카툰을 시에 비유한다면 서사만화는 소설에 비유할 수 있다. 한시의 시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기승전결을 사용하는데, 네칸만화는 카툰과 서사만화의 사이에 위치하는 최소화된 기승전결의 만화 형식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발단·전개·절정·결말의 구조를 각각의 한 칸 안에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네칸만화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기승전결에 맞게 이야기를 창작하는 최소한의 만화 형식으로써의 창의적인 네칸만화 교육이 이루어질 때 기승전결의 압축된 창작 훈련이 가능해짐을 의미하고 이의 확장이 장단편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만화콘텐츠 교육을 책임질 대학교육에서 네칸만화 콘텐츠의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네칸만화의 구조와 수사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내용과 방법

신문의 시사만화에는 <만평>과 <네칸만화>가 있다. 만화의 소재는 다양하지만 시사만화의 특성상 소재는 사건 위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시사 네칸만화는 정치·경제·사회 문화를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풍자하면서 희화화한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수많은 질곡으로 점철된 역사이다. 말하고 싶었으나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신문의 네칸만화가 대신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괴력이 있는 만화의 한 장르라고 하겠다. 그로인하여 시사 네칸만화는 최근에 발생한 이슈화된 사건들을 촌철살인과도 같은 풍자와 해학으로 다루기 때문에 권력의 이해와 상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생긴 일화로써 1958년 동아일보에 실린 <고바우영감>의 경무대 풍자로 인한 벌금형 선고가 대표적이다. 시사 네칸만화는 권력을 가진 이들을 풍자하고 희화화하면서 이로부터 해학의 카타르시스를 갖게 만든다. 신문의 시사 네칸만화는 직접적이고 강한 풍자성을 갖기 때문에 현재진행형의 권력과 가까울수록 풍자와 해학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1) 손상익, 「New media와 한국 시사만화」, 2009 참조.

2) 한국에서의 만화는 넓은 의미로, 카툰, 네칸만화 등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극화, 서사만화, 연재만화, 이야기만화, 코믹스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페이지를 단위로 하는 만화이다. 이 문장에서 '카툰과 만화'라고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의 만화와 구분하기 위하여 '카툰과 서사만화'로 표기하였다.

본 연구는 첫 번째, 연구 대상으로 경향신문의 <장도리>를 선정하였다. 시사만화는 권력과 일정 거리를 두고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을 희화화한다. 여러 신문의 시사 네칸만화 중에서 현 권력과 이해가 가장 상충한다고 여겨지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중에서 선택한 이유이다.

두 번째, <장도리>를 연속적인 30회로 한정하였다.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입맛에 맞는 네칸만화만 연구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한 회라도 연속 날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연구 초기부터 원칙으로 세웠다. 30회의 연재 시기는 2009년 8월 11일자부터 9월 21일자까지이다. 특이점으로 9월 2일에는 두 개의 시사 네칸만화(0902, 0902a)가 실렸으며 9월 7일부터 12일은 휴재였기에 날짜가 길어지게 되었다.<sup>3)</sup>

세 번째, 네칸만화를 연구하는 방법으로써 <기승전결 구조>와 <수사법>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뼈대가 될 수 있는 기승전결 구조 위에 살로써 수사법이 입히면서 이야기에 힘이 생기고 규칙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기승전결 구조>를 간소화하였다. 수학에 공식이 있고 국어에는 문법이 있듯이 네칸만화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공식이나 문법을 찾기 위해 <기승전결 구조>와 <수사법>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초기 연구에서는 <기승전-결>, <기승-전결>, <기-전, 승-결>, <기승-전-결>, <기-승전-결>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네칸만화의 구조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복잡하고 변수가 너무 많아지는 단점으로 인하여 기승전결 구조를 간소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 대상의 30회를 두개의 모델로 압축하게 되었다. 첫 번째 모델은 <기승전-결>로써 <결>에서 맺기 위하여 <기승전>이 <결>을 비유하거나 <결>과 대조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 모델은 <기승-전결>로써 <기승>이 <전결>을 비유하거나 <전결>과 대조되는 경우이다.

다섯 번째, 수사법의 종류를 최대한 줄였다. 수사법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초기에는 네칸만화에 사용된 수사법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나중에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르치는 입장이나 배우는 입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이해하기 쉽고 분명한 대표적인 수사법으로 정리하고자하였다. 시사 네칸만화의 수사법으로는 비유법 대조법 열거법 반복법 속담법 인용법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법은 비유법과 대조법이다. 하지만 비유법과 대조법은 반대 선상에 있는 수사법임에도 불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에 빠지기 쉬운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하여 시사만화가가 <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유사냐? 대립이냐?'를 염두에 두고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섯 번째, 열거법 반복법 속담법 인용법은 기승전결 구조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네 수사법은 비유법과 대조법을 보조해 주는 수사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다. 즉 시사 네칸만화의 주된 수사법은 비유법과 대조법이고 그 외의 수사법은 보조 수사법이다. 또한 열거법의 1회를 제외하고 비유법 또는 대조법과 100% 중복된다는 점에서 기승전결 구조를 밝히지 않은 이유이다. 하지만 30회 분량에서 총 23회에 걸쳐 자주 사용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수사법들이다.

3) 박순찬, <장도리>, 경향신문, 2009.

경향신문 박순찬의 시사 네칸만화 <장도리> 30회가 연구 대상이며, <그림 1~2>를 제외하고 <그림 3>부터 <그림 47>까지의 그림이 <장도리>이기 때문에 각 그림에 별도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 II. 네칸만화의 기승전결 구조와 수사법

### 1. 네칸만화와 기승전결 구조

#### 1) 기승전결의 정의

기승전결을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한시에서 시구를 구성하는 방법 또는 논설문 따위의 글을 짜임새 있게 짓는 형식이라고 정의한다.<sup>4)</sup> 이러한 기승전결의 의미는 각각의 한자에 잘 담겨져 있다. ‘기(起)’는 일어난다는 의미로써 시작하는 부분, ‘승(承)’은 잇는다는 의미로써 전개하는 부분, ‘전(轉)’은 구르다, 옮기다, 넘어지다는 의미로써 앞의 내용을 부연하거나 전환하는 부분, ‘결(結)’은 마치다는 의미로써 맺는 부분이다. 이미 기승전결 안에 이야기의 구성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의 대표적인 장르인 소설의 구성단계를 보면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로 구성된다. ‘발단’은 인물과 배경이 등장하고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 ‘전개’는 사건이 진행되는 부분, ‘위기’는 사건의 위기감이 고조되어 극적인 요소를 잘 보여주는 부분, ‘절정’은 인물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 ‘결말’은 위기와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의 윤곽과 인물의 운명이 분명해지는 부분이다. 이를 기승전결에 빗대면 발단=기, 전개=승, 위기 혹은 절정=전, 결말=결에 비유할 수 있다.

#### 2) 네칸만화와 기승전결 구조

네칸만화는 이야기를 가진 장르로써 네칸으로 완결성 있는 이야기를 갖추어야 한다. 네칸 안에서 인물이 등장하고 배경이 드러나며, 사건이 전개되어 한 편의 이야기가 된다. 사건의 중심에는 이야기의 중심인물이 등장한다. 시사 네칸만화에서는 이 인물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일 수도 있다. 주연과 조연, 혹은 주인공과 라이벌의 관계가 시사 네칸만화에서는 대립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자와 약자라는 계급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결에서는 풍자와 해학의 희화화 대상인 이야기의 중심인물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네칸이란 칸의 한계와 맺음을 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결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사건의 중심인물인 권력을 가진 이거나 대립하는 서민인 경우이며, 이들이 함께 등장함으로써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극명하게 대립 상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네칸만화의 기승전결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승전>과 <결>의 구조이다. 이 구조는 비유법과 대조법에서 사용된다. 기승전결 구조를 밝힘에 있어서 수사법과 관련된 기호에는 ‘↔’과 ‘→’이 있다. 비유법에서는 <기승전>이 <결>을 비유로 수식한다. <그림 1>에서 ‘→’기호는 비유한다는 의미로써 단방향화살표(→)기호를 사용하여 <기승전>→<결>로 표기한다. 대조법에서는 <기승전>의 인물이나 사건이 <결>의 인물이나 사건과 대립 혹은 갈등하는 관계이다. ‘↔’기호는 대립한다는 의미로써 양방향화살표(↔)기호를 사용하여 <기승전>↔<결>로 표기한다.

4) Daum, 「기승전결」, (국어사전), <http://www.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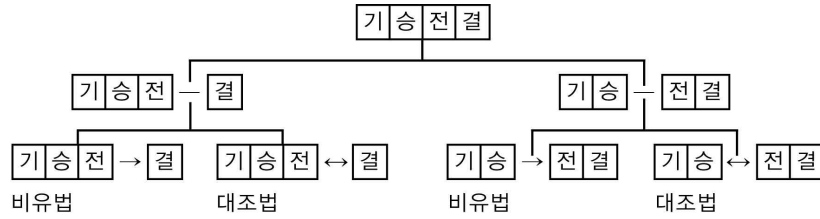


그림 1. 비유법과 대조법의 기승전결 구조

두 번째는 <기승>과 <전결>의 구조이다. 비유법에서는 <기승>이 <전결>을 비유로 수식하며, <기승>→<전결>로 표기한다. 대조법에서는 <기승>의 인물이나 사건이 <전결>의 인물이나 사건과 대립 혹은 갈등하는 관계이며, <기승>↔<전결>로 표기한다.

네칸만화의 기승전결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 <기승전결>이 아니고 <전전전결> 구조와 같은 분석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 원인은 기승전결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야기 구조에 맞추기 때문이다. <그림 2>의 경우, <기>와 <승>, <전>에 해당하는 각각의 내용이 기승전결의 <전>의 의미와 부합하기 때문에 <전전전결> 구조로 보기 쉬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승전결 구조의 각이 이야기 구조의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승전>-<결> 구조와 <기승>-<전결> 구조의 구분만으로도 시사 네칸만화의 분석틀로써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각각의 내용에 따른 <전전전>은 <결>과 대조되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하는 <기승전>으로 표기되어 <결>과 대조됨을 최종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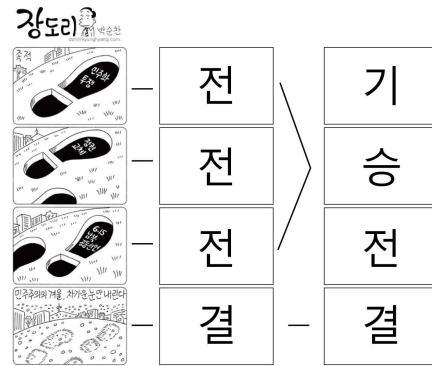


그림 2. 기승전결 구조의 분석틀에 따른 예

## 2. 네칸만화와 수사법

### 1) 수사법의 정의

수사법을 국어사전에서는 ‘효과적·미적 표현을 위하여 문장과 언어를 꾸미는 방법’이라고 백과사전에서는 ‘말이나 글을 매개로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기술로서 표현이나 설득에 필요한 다양한 기법’이라고 정의한다.<sup>5)</sup> 이 정의를 시사 네칸만화에 적용한다면 ‘풍자적 해학적 표현을 위하여 만화를 꾸미는 방법’ 또는 ‘그림과 글을 매개로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기술로서 설득에 필요한 다양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브리태니커 사전에서는 수사법을 표현방법에 따라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으로 나누고 있으며, 비유법에는 직유법, 은유법, 제유법 등을, 강조법에는 반복법, 열거법, 과장법, 점층법 등을, 변화법에는

5) Daum, 「수사법」, (국어사전 & 백과사전), <http://www.daum.net>

대조법, 반어법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sup>6)</sup> 초기 연구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네칸만화의 수사법을 비유법과 강조법, 변화법으로 구분하여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지만 적용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방향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를 김옥동의 '수사학이란 무엇인가'를 인용하여 대신한다면, "수사법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수사법을 몇 갈래로 나누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수사학의 갈래를 정확히 분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잣대로 분류하려고 하면 다른 수사법이 빠져나가고, 저 잣대로 분류하려고 하면 또 다른 수사법이 빠져나간다."고 분류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sup>7)</sup>

## 2) 네칸만화와 수사법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수사법의 범위를 넓히기 보다는 좁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직유법 은유법·제유법을 포함하는 '비유법'과 열거법 반복법 과장법을 포함하는 '강조법', 대조법 반어법을 포함하는 '변화법'의 분류 대신으로 다음의 기준을 정하여 분석틀을 수정하였다.

첫 번째, 비유법의 사용이다. 직유법·은유법·제유법 등으로 분류하는 대신에 이들을 포함하는 '비유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대조법의 사용이다. 대조법과 반어법 등이 '변화법'에 포함되지만 많은 비율로 사용되는 대조법을 사용하는 것이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 열거법과 반복법의 사용이다. 두 수사법은 열거법의 1회를 제외하고 비유법 또는 대조법과 중복된다. 하지만 각각의 사용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독립된 수사법으로서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네 번째, 속담법과 인용법의 사용이다. 비유법 또는 대조법과 100% 중복되며 기승전결 구조도 중복되는 수사법을 따른다. 하지만 사용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예외적인 수사법으로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수사법 중에서 시사 네칸만화의 분석틀로써 사용하는 수사법은 비유법·대조법 열거법·반복법·속담법·인유법 여섯 개로 한정하였다. 초기의 다양한 수사법 분석에서 여섯 개로 한정함으로써 시사 네칸만화의 분석이 쉬워지고 분명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 (1) 비유법

이야기 대상으로서의 인물이나 사건을 다른 대상에 비유를 통해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비유법에는 보조 대상을 사용하여 주 대상에 비유하는 직유법, 이야기 대상인 둘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은유법, 부분으로 전체를 혹은 전체로 부분을 비유하는 제유법 등이 있다. 비유법인지를 분석하는 틀로써 <유사>를 들 수 있다. <기승전>과 <결>의 유사, <기승>과 <전결>의 유사한 사건의 비유가 그에 해당한다.

### (2) 대조법

이야기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대상을 들어 인물간의 대립 혹은 대조를 극명히 보여줌으로써 갈등과 위기를 고조시키는 수사법이다. 대조법인지를 분석하는 틀로써 <대립>을 들 수 있다. <기승전>과 <결>의 대립, <기승>과 <전결>의 대립이 그에 해당한다.

6)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수사법」,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2s3463a](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2s3463a)

7) 김옥동, 2002, p.46

**(3) 열거법**

비슷한 내용이나 성격을 지닌 단어·어구·문장·만화를 열거하여 사건을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4) 반복법**

의미를 강조하거나 흥취를 돋우기 위해 단어·어구·문장을 반복하는 수사법이다. 시사 네칸만화에 서는 ‘동음이의어’보다는 동음(同音)이 있는 단어의 반복을 통하여 사건을 강조한다.

**(5) 속담법**

속담을 사용하는 수사법이다. 독자에게 잘 알려진 속담을 사용함으로써 친근함과 이야기하고자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6) 인용법**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건이나 내용을 사용하는 수사법이다. 유행되고 있는 말이나 내용 등이 있다.

**III. 네칸만화의 기승전결 구조와 수사법 분석**

**1. 기승전결 구조와 비유법**

**1) <기승전→결> 구조의 비유법**

<기승전→결> 구조의 토대 위에 비유법을 사용한 네칸만화이다.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법(예:호박 같은 내 얼굴=A같은 B, 유사한 A의 사건으로 B를 비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0812 : <기승전>의 <기>에서 보조 대상(서민)을 등장시키고 <승전>에서 서민 이반의 걱정하는 상황을 풀어내며 <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 대상(박정희)을 등장시켜, 보조 대상(서민)으로 주 대상(배고프면 찾는 인물)에 비유한다.

0817 : <기승전>의 <기>에서 보조 대상(신종플루)을 등장시키고 <승전>에서 언론악법 규탄 대회와 같은 시위를 피하는 상황을 풀어내며 <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 대상(독재자들)을 등장시켜 보조 대상(신종플루)로 주 대상(독재자들)에 비유한다.

0819 : <기승전>의 <기>에서 보조 대상(김대중)을 등장시키고 <승전>에서 서거한 상황을 풀어내며 <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 대상(촛불시위)을 등장시켜 보조 대상(쓰러짐)으로 주 대상(꺼질듯함, ‘바람 앞의 촛불’)에 비유한다.

0831 : <기승전>의 <기>에서 보조 대상(민심)을 등장시키고 <승전>에서 자민당 참패 상황을 풀어내며 <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 대상(포장만 바뀌 유지하는 한나라당)에 비유한다.(자민당과 한나라당의 유사)

0915 : <기승전>의 <기>에서 보조 대상(유신시대)을 등장시키고 <승전>에서 당시 언론 통제를



풀어내며 <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 대상(현 언론통제)에 비유한다.

0818 : <기승전>에서 민주화에 역행하는 사건(쌍용·용산·실업·날치기·전셋값·안보)을 <결>의 다른 사건(제 정신으로 살기 힘든 시대)에 비유한다.

0919 : <기승전>에서 언론통제 사건(감시 검열 감사)을 <결>의 다른 사건(길들여진 언론지식인)에 비유한다.



그림 3. 0812    그림 4. 0817    그림 5. 0819    그림 6. 0831    그림 7. 0915    그림 8. 0818    그림 9. 0919

## 2) <기승→전결> 구조의 비유법

<기승→전결> 구조의 토대 위에 비유법을 사용한 네칸만화이다. <기승>과 <전결>은 각각 완결성 있는 유사한 이야기이다. 이 구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기>는 <전>, <승>은 <결>과 유사한 대구법적인 비유법을 사용해 독자가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든다.

0814 : <기승>에서 '알에서 나온 지도자'의 유사한 이야기로 <전결>의 '박에서 나온 과거로 회귀하는 지도자'에 비유한다. <기(건국신화)>→<전(21세기에도)>과 <승(알에서 나온 지도자)>→<결(타임캡슐에서 나온 지도자)>이 유사한 내용으로 인해 대구적인 리듬이 생긴다.

0829 : <기승>에서 '성공 불가능'의 이야기로 <전결>의 '내 집 마련의 불가능'에 비유한다. <기(개천예선)>→<전(성인이 되면)>과 <승(용꿈 깨라)>→<결(달팽이꿈 깨라)>이 유사한 비유이다.

0901 : <기승>에서 '돌아온 경제특보'의 유사한 이야기로 <전결>의 '재기용하는 홍보수석'에 비유한다. <기(돌아온)>→<전(구관이)>과 <승(리만브라더스)>→<결(명관)>이 유사한 비유이다.

0902 : <기승>에서 '허경영의 황당함'의 이야기로 <전결>의 '4대강'에 비유한다. <기(아프다)>→<전(힘들다)>과 <승(허경영을 불러봐)>→<결(4대강을 살려봐)>이 유사한 비유이다.

0904 : <기승>에서 '신종 플루로 인한 외출 후 손씻기'의 이야기로 <전결>의 '과거 발언의 입 씻기'에 비유한다. <기(외출 후엔)>→<전(자리에 앉을 땐)>과 <승(손 씻기)>→<결(입씻기)>이 유사한 비

유이다.



그림 10. 0814    그림 11. 0829    그림 12. 0901    그림 13. 0902    그림 14. 0904

## 2. 기승전결 구조와 대조법

### 1) <기승전↔결>의 대조법

<기승전↔결> 구조의 토대 위에 대조법을 사용한 네칸만화이다.

#### (1) 열거형

<기승전>에서 비슷한 내용을 열거하고 <결>과 대립하게 하는 구조이다.

0813 : <기승전>에서 비슷한 내용(생활교·빈익빈-정치불만-정리해고로 음주하는 서민)을 열거하고, <결>의 권력과 대립하고 있다. 특히 <결>에서는 대립의 양상을 강조하기 위해 말풍선 및 죄지은 자의 사면과 대치되게 간혀 있는 이들을 한 칸 안에서 연출하고 있다.

0815 : <기승전>에서 비슷한 내용(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1대-2대-3대)을 열거하고, <결>의 등장인물(친일 파 후손)과 대립하고 있다. 특히 <결>에서는 <기승전>에서 등장하던 독립운동가 후손과 친일 파 후손을 같이 배치함으로써 대립의 양상이 더욱 고조된다.

0820 : <기승전>에서 비슷한 내용(민주화투쟁-정권교체-6·15남북공동선언의 봄 족적)을 열거하고, <결>의 눈에 파묻힌 겨울 족적과 대립하고 있다.

0825 : <기승전>에서 비슷한 내용(민주화-햇볕-탈권위)을 열거하고, <결>의 등장인물(이명박)과 대립하고 있다. 특히 <결>에서는 권력과 서민(추모인파)을 같이 배치함으로써 대립의 양상을 고조시킨다.

0905 : <기승전>에서 비슷한 내용(친서민-중도실용-비판학자 총리·뉴MB의 언론플레이 속 서민)을

열거하고, <결>의 내용(공안 방송장악 민간인사찰 4대강)과 대립하고 있다. <결>에서는 권력에 의해 <기승전>의 배경인 '공원'이 갇힌 모습으로 그려짐으로써 대립의 양상이 고조된다.

0918 : <기승전>에서 비슷한 내용(수뢰·거짓말-땅투기-탈세·위장전입·탈법행위)을 열거하고, <결>의 등장인물(서민)과 대립하고 있다. <결>에서는 서민의 등에 직설적으로 '무능력 죄'를 표기함으로써 대립이 고조된다.



그림 15.  
0813

그림 16.  
0815

그림 17.  
0820

그림 18.  
0825

그림 19.  
0905

그림 20.  
0918

## (2) 끼어들기형

<기승전>에서 <기승>은 <결>과 이어지는 비슷한 내용으로써, <전>이 끼어들어 <기승> 및 <결>과 대립하는 양상이다. <전>이 <기승>과 대립하지만 <기승전>으로 묶어져 더욱 <결>과 대립이 고조되는 <기승전↔결> 구조이다.(앞에서 <기승↔전↔결> 구조를 지양하기로 하였다.)

0811 : <기승전>의 <기승>과 <결>이 점층적으로 커지는 내용으로써, <전>이 끼어들어 <기승전>으로 묶어져 최고조에 달하는 갈등(탄압) 상황이 되고 <결(언론탄압)>의 내용과 대립한다.

0826 : <기승전>의 <기승>과 <결>이 이어지는 내용(죽음)으로써, <전>이 끼어들어 <기승전>으로 묶어져 배치되는 화합 통합 친서민의 상황이 더욱 강조됨으로써 <결(용산 희생자)>의 내용과 대립한다.

0827 : <기승전>의 <기승>과 <결>이 이어지는 내용(우물)으로써, <전>이 끼어들어 <기승전>으로 묶어져 성급한 상황을 드러내고 <결(이공계 홀대)>의 내용과 대립한다.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0811                          0826                          0827

**(3) 기타**

0902a : <기승전>의 <기>에서 이야기 소재(네티즌의 정부 비판)가 등장하고 <승전>에서 풀어내며(사이버망명으로 안심하는 네티즌) <결>에서 감청하는 국정원과 대립한다.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0902a                          0917                          0914                          0821

0917 : <기승전>의 <기>에서 이야기 소재(여론조사)가 등장하고 <승전>에서 풀어내며(지지하는 서민) <결>에서 국정원에 의해 감청되는 현실과 대립한다.

0914 : <기승전>의 <기승>에서 이야기 소재(참사)가 등장하고 <전>에서 풀어내며 <결>(병역면제·논문이중게재·위장전입)>의 내용과 대립한다.

0821 : <기승전>에서 정의로운 법집행자(판사·변호사·검사)와 <결>에서 불의로운 법집행자의 역할 대립이다.

## 2) <기승↔전결>의 대조법

<기승↔전결> 구조의 토대 위에 대조법을 사용한 네칸만화이다. 0822를 제외하고 <기승>과 <전결>은 대립하는 이야기이다. 이 구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기>는 <전>, <승>은 <결>과 대립하는 대구법적인 대조법을 사용해 독자가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든다.

0828 : <기승>에서 '기침으로 피하는 사람'은 <전결>의 '헛기침으로 모이는 사람'과 대립하는 이야기이다. <기(기침)>↔<전(헛기침)>과 <승(피하는 사람)>↔<결(모이는 사람)>이 대구적으로 대립한다.

0916 : <기승>에서 '한국 싫다는 가수'에 반발하는 네티즌'은 <전결>의 '한국 좋다는 일 총리부부를 환영하는 정부'와 대립하는 이야기이다. <기(싫다)>↔<전(좋다)>과 <승(꺼져라)>↔<결(모셔)>이 대립한다.

0921 : <기승>에서 '화려한 무대 뒤의 초라한 연극인'은 <전결>의 '소박한 무대 뒤의 화려한 권력'과 대립하는 이야기이다. <기(화려한)>↔<전(소박한)>과 <승(초라한 연극인)>↔<결(화려한 권력)>이 대구적인 리듬으로 대립한다.

0822 : <기승>의 <기>에서 인물(서거)을 등장시키고 <승>에서 풀어내며 <전결>에서 '고난과 비난'으로 내몰았던 대상(박정희, 전두환, 언론)과 대립한다.



그림 28.  
0828

그림 29.  
0916

그림 30.  
0921

그림 31.  
0822

## 3. 열거법 · 반복법 · 속담법 · 인유법

## 1) 열거법

<기승전↔결>의 대조법과 중복되는 열거법에 해당하는 네칸만화는 <그림 15>부터 <그림 20>이며, 0818과 0919는 <기승전→결>의 비유법과 중복되는 열거법 예이다.

0818 : <기승전>에서 비슷한 내용(쌍용·용산-전셋값·실업·날치기-안보만화출간)을 열거한다.

0919 : <기승전>에서 비슷한 내용(감시-언론통제-표적감사)을 열거한다.

0824 : <기승전>에서 비슷한 내용(민주화 갈망-남북화해 희망-인권향상 기원)을 열거한다.



그림 32.  
0818

그림 33.  
0919

그림 34.  
0824

## 2) 반복법

시사 네칸만화에서는 '동음이의어'보다는 동음(同音)을 포함한 단어의 반복을 통하여 사건을 강조 하며, <기승전↔결>의 대조법과 중복된다.



그림 35.                  그림 36.                  그림 37.                  그림 38.  
0811                      0826                      0914                      0821

811 : <기(용산)>, <승(쌍용)>, <결(삼룡)>에서 동음을 포함한 단어가 반복된다. ‘용’의 동음 반복이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용산, 쌍용, 삼룡이다.

0826 : <기(국장)>, <승(국민장)>, <결(염장)>에서 동음을 포함한 단어가 반복된다. ‘장’의 동음 반복이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국장, 국민장, 염장이다.

0914 : <기(용산참사)>, <승(임진강참사)>, <결(도덕성참사)>에서 동음을 포함한 단어가 반복된다. ‘참사’의 동음 반복이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용산참사, 임진강참사, 도덕성참사이다.

0821 : <기(판사)>, <승(변호사)>, <전(검사)>, <결(해결사)>에서 동음을 포함한 단어가 반복된다. ‘사’의 동음 반복이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판사, 변호사, 검사, 해결사이다.

### 3) 속담법

속담이나 격언 및 관용구를 인용하는 수사법이다. 독자에게 잘 알려진 속담 등을 사용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0819 : <결>에서 ‘바람 앞의 등불(촛불)’을 인용하고 있다.

0902a : <결>에서 ‘독 안에 든 쥐’를 인용하고 있다.

0919 : <결>에서 ‘천고마비의 계절’을 인용하고 있다.

0827 : <기승결>에서 ‘우물에 가 송능 찾는다’를 인용하고 있다.

0829 : <기승>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를 인용하고 있다.

0901 : <전결>에서 ‘구관이 명관이다’를 인용하고 있다.



그림 39.  
0819



그림 40.  
0902a



그림 41.  
0919



그림 42.  
0827



그림 43.  
0829



그림 44.  
0901

#### 4) 인용법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건이나 내용을 사용하는 수사법이다. 유행되고 있는 말이나 내용 등이 있다.

0814 : <기승>에서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신화'를 인용하고 있다.

0901 : <기승>에서 서부영화 '돌아온 장고'를 인용하고 있다.

0902 : <승>에서 '허경영을 불러봐'를 인용하고 있다.



그림 45.  
0814

그림 46.  
0901

그림 47.  
0902



## IV. 결론

<표 2>는 기승전결 구조와 수사법으로 분석하였던 네칸만화의 표이다. 표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기승전결 구조에서 <기승전-결> 구조의 사용 빈도가 높다. <기승전-결> 구조는 비유법(7)+대조법(13)+열거법(9)=29회이며, <기승-전결>구조는 비유법(5)+대조법(4)=9회의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수사법 중에서 대조법의 사용 빈도가 높다. 각 수사법의 사용 빈도는 대조법(13+4)이 17회, 비유법(7+5) 12회, 열거법 9회, 반복법 4회, 속담법 6회, 인유법 4회로 대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비유법의 사용 빈도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세 번째, 중복의 여부이다. 열거법(9)+반복법(4)+속담법(6)+인유법(4)=23회 중에서 열거법의 1회를 제외한 22회가 비유법 또는 대조법과 중복된다. <기승↔전결>의 대조법은 4회 중에서 1회도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기승전결 구조의 수사법이다. 반면에 반복법, 속담법, 인유법은 모두 중복된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네칸만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승전결 구조와 수사법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되었다. 기승전결의 뼈대를 알기 위해서는 뼈대 위에 수사법이 어떻게 입혀져 있는지를 알아야 기승전결 구조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법과 대조법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도 대조법을 비유법으로 비유법을 대조법으로 해석하였다. 만화교육에서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을 간소화했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만화교육과정에서 그동안 도외시되던 네칸만화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네칸만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흥미를 가지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네칸만화는 고유한 특징인 네 개의 칸이 분석틀로써 좋은 장점이었기에 기승전결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경향신문 <장도리>를 기승전결 구조와 수사법으로 분석하면서 시사만화가 박순찬의 네칸만화 아이디어와 이야기 창작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순수 네칸만화의 영역까지 넓힐 수는 없었지만 시사 네칸만화의 원리를 기반으로 순수 네칸만화까지 관심과 이해를 가질 수 있게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이해야 만든 셈이다.

수사 구조	비유법		대조법		열거법	반복법	속담법	인유법
	기승전→결	기승→전결	기승전↔결	기승↔전결				
1			0811		-	-	-	-
2	0812							
3			0813		0813			
4		0814						0814
5			0815		0815			
6	0817							
7	0818				0818			0818
8	0819						0819	
9			0820		0820			
10			0821			0821		
11				0822				
12					0824			
13			0825		0825			

14			0826			0826		
15			0827				0827	
16				0828				
17		0829					0829	
18	0831							
19		0901					0901	0901
20		0902						0902
21			0902a				0902a	
22		0904						
23			0905		0905			
24			0914			0914		
25	0915							
26				0916				
27			0917					
28			0918		0918			
29	0919				0919		0919	
30				0921				
합산	7	5	13	4	9	4	6	4
중복O	3	4	12	0	8	4	6	4
중복X	4	1	1	4	1	0	0	0

표 2. 네칸만화의 기승전결 구조와 수사법 분표

## 참고문헌

- 김옥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2.
- 김을호, 「한국 신문만화의 언어유희적 기법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통권 10호(2006), pp.1-16.
- 박성식, 『만화 콘텐츠 비즈니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5.
- 박순찬, 『장도리』, 경향신문, 2009,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mode=list&code=361102&page=15](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mode=list&code=361102&page=15)
- 손상익, “New Media와 한국 시사만화”, 『삼손 패밀리와 화려한 외출』, 2009.5.27, <http://blog.naver.com/samson1264/70047839204>
- 손상익, 「New media와 한국 시사만화」, 한국시사만화100주년기념 국제포럼, 2009.
- 이원석, 「국내의 네칸만화 수사적 표현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통권 9호(2005), pp.18-32.
- Eisner, Will, Graphic storytelling and visual narrative, 조성면 역, 『그래픽 스토리텔링과 비주얼 내러티브』, 비즈앤비즈, 2009.
- Harrison, Randall P., *The Cartoon : Communication to the Quick*, 하종원 역, 『만화와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실천, 1989.
- Igarashi, Mikio, *Bonobono 14*, 권성애 역, 『보노보노 14』, 서울문화사, 1999.
- Schulz, Charles M., *A Peanuts Book featuring SNOOPY*, 고성훈 역, 『피너츠 북 스누피 시리즈1』, 신영미디어, 1994.

## ABSTRACT

# **Research on the Structure of 4 Panel Comic Strips and Rhetoric Expression for the Education of Comic Contents: with <Jangdori> of Kyunghyangsinmoon**

Keong-Cheol Park

We can say that there are several majors in the course of cartoon education of college; cartoon, manpyung, 4 panel comic strips, editorial cartoon, webtoon and so on. Among them, this study starts with concrete question; "How can we encourage students to understand 4 panel comic strips better in the educational course of 4 panel comic strips?" 4 panel comic strips divided into two groups ,depending on the materials. The first is daily cartoon which depicts the emotion in daily life. The second is editorial cartoon which deals with the problems of society in the ironical and witty way. Judging from my own thoughts that it would be better in the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structures to take editorial cartoon in which materials are confined to social problems, this study treats rhetoric expression and structures of 4 panel comic strips. Introduction, development, turn and conclusion of "Jangdori" on Kyunghyangsinmoon are good materials for this study. So, "Jangdori" is in the center of this stud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knowledge in creating 4 panel comic strips with the understanding the area of 4 panel comic strip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hetoric expression and structures of this field. Even though this study has a limit, no access to daily 4 panel comic strips, I hope that this study would be a little help in any places in which the education of 4 panel comic strips is needed as a part of a course of cartoon in college.

Keyword: 4 panel comic strips, editorial cartoon, newspaper cartoon, contents of comics, the education on contents

박경철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062) 230-7812 / manphist@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0.05.15

심사종료일: 2010.06.14

게재확정일: 2010.06.14